

特輯 AIDS 予防対策, 어떻게 管理하면 좋은가

◆...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은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AIDS는 1987년 5월 27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구상에 5만여 명의 환자와 5백만명~1천만명의 HIV양성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중 10~30% 이상에서 1년 이내에 AIDS에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6월말까지 9명이 HIV양성자로 확인되었고 이중 1명은 사망하여 AID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IV가 체내에 침입하게 되면 인체에서 연

역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림파구를 공격, 파괴한다. 이렇게 되면 각종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미생물에 감염(기회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무저항 무방비 상태가 된다. 따라서 AIDS 환자는 HIV 감염 자체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면역기능파괴에 의한 기회감염으로 죽게 된다. HIV에 감염된 후 대부분은 이상이 없고 일부에서만 AIDS로 진행하는데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에 의하면 AIDS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세포면역기능의 결함이 있고 한가지 이상의 기회감염이 있거나 카포시육종이 동반되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며 체중이 감소된다. 또 열과 식은 땀이 나고 피로감과 입파선이 붓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다른 질병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전문의를 찾아 상담한 후 필요하면 항체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체중감소는 본래 체중의 10%이상되어야 하고 발열이나 설사도 그 기간이 1개월이상 계속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입파선이 붓는것도 두군데 이상으로 1cm이상의 크기가 3개월이상 계속되어야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더 진행되면 전형적인 AIDS가 되어 면역기능의 파괴로 인한 2차감염(기회감염)과 피부에 종양(카포시 육종)이 생기고 뇌에도 침



崔康元 <서울醫大> 內科교수

HIV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항체검사를 한다. 항체검사법은 효소면역측정법(ELISA)와 western blot 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번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western blot 법으로 확인해 본다. 항체 양성인 사람은 HIV의 감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특수검사를 하여 AIDS로 진단되는가를 점검하고,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항체검사가 실시된 후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해 검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여 혈액으로 인한 전파는 방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AIDS의 치료는 HIV 바이러스에 대한 약으로 Azidothymidine 이 있는데 증상이 좋아지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차적인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보다 약에 잘 듣지 않고 부작용이 심하며 치료후에도 잘 재발된다. 현재로서는 AIDS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예방주사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IDS의 전파양상을 알고 이에 대처한다면 AIDS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성관계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배우자와 건전한 관계를 권장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한다. 소독되지 않는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하면 안되고 면도기도 같이 쓰지 않아야 된다. 혈액이나 혈액제제는 반드시 항체검사를 하여 양성이면 폐기처분하고, 분만전후의 감염이 많으므로 항체 양성인 여자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臨床증상 治療대책

범하여 정신이 이상해지고 마비 증상도 올 수 있다. AIDS 환자에게 피부에 생기는 종양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는 하나 직접 사망원인이 되는 경우는 적고 기회 감염증이 환자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한다. 기회감염증 원충에 의한 폐렴(Pneumocystic carinii 폐렴)이 많이 생기는데 기침과 열이 나며 호흡이 곤란해진다. 그리고 진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구강이나 식도, 항문에 열증이 많이 생기고 뇌막염이나 위장관염도 생긴다. AIDS 환자에서 중추신경에는 기회감염뿐 아니고 HIV가 직접 중추신경에 침입하여 기억력장애, 정신이상 운동마비가 나타나고 뇌막염이나 망막염이 발생된다.

“혈액제제는 반드시 抗体検査를”

체중감소·피로감등 일반적인 感冒증상과 비슷 原因알수없는 高熱계속 專門醫 찾아 상담토록 抗体陽性인 女子경우는 임신을 하지말아야

바이러스는 모든 체액에 존재하고 있으나 혈액, 정액, 질 분비물이 HIV의 전파에 중요하다. 또 HIV는 조건, 열, 자외선, 세척제, 표백제, 알코올 등에 아주 약해 쉽게 파괴된다. HIV의 전파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성적 접촉을 통한 것으로 동성 혹은 이성간에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며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다. 성적접촉상대자가 많을수록 감염위험이 높아 지지만 단 한번의 성적 접촉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전파로서 장기공여나 혈액공여를 할 때 특히 혈우병환자와 같이 혈액제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전염될 수 있다. 또 피부의 상처가 있을 때 전염될 수 있으나 정상 피부를 통해서만 전염되지 않는다. 셋째는 분만 전후의 감염인데

감염된 모체로부터 태내 감염되거나 분만도중에 감염되고 분만후에도 모유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그외에 HIV에 오염된 주사바늘에 우연히 찔려 감염될 수도 있다. AIDS는 정상적인 사회적 접촉이나 일상적인 가정내 접촉으로는(성접촉은 제외), 전염되지 않는다. 즉 악수, 가벼운 사교적 입맞춤, 포옹, 술잔, 문손잡이, 수영장 목욕탕, 변기, 침대시트, 타올, 접시, 컵 등의 식사도구는 같이 사용해도 감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기나 빈대와 같은 곤충에 의해서도 전파되지 않는다. HIV의 감염후에 나타나는 임상상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부터 심한 면역결핍증과 치명적인 기회감염이나 악성종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처음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2~3주의 잠복기를 거

친 후 약 반수에서 마치 감기 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이 나고 땀이 많아지며 쇠약감과 식욕저하, 근육과 관절이 아프고 설사나 입파선이 붓는다. 이런 증상은 2~3주후에 저절로 없어진다. 그리고 약 2개월이 지나면 혈중에 항체가 나타난다. HIV는 다른 만성바이러스질환처럼 몸에 항체가 있어도 중화되지 않고 체내에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항체 양성인 경우는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HIV에 감염된 후 나타나는 증상이 전형적인 AIDS보다 가벼운 때는 AIDS 관련증후군(ARC)라 한다. 증상으로서는 식욕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



휴대용 혈당측정기는 환자 및 일반인이 병원애가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정, 직장 및 여행중 본인 스스로 혈당치를 측정하고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소형혈당측정기입니다.

- 특징:**
- 한방울의 혈액(血液)으로 측정(測定) 됩니다.
 - 측정범위: 0~1,000mg/dl 물로 닦을 필요가 없음
 - 날짜, 회수, 혈당치가 동시 100회까지 기억 재생됨
 - 검사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한 휴대가 됩니다.
 - 검사 시험지(Strip)을 냉장고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음.

제조원: **DXC Kyoto DAIICHI**
 판매원: **정우양행**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24-14(경북빌딩 101호)
 전화: 276-0277
 276-0278

※당뇨신문
 “소망”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보내실곳: “대한당뇨협회”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24-14
 경북빌딩 101호
 TEL: 265-9822